



# 한경 BUSINESS



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  
“평창, 흑자 올림픽으로 기록될 것”

똑똑한 사람은 투자에 서툴다?  
하반기 서울 유망 재개발 어디  
월 지급 금융상품 철저 가이드

## 외국계 증권사 왜 강한가

### 세계 쥐락펴락 맥킨지 인맥 파워

‘홍삼 사업가 변신’ 탤런트 안재모 스토리  
유튜브 비즈니스로 대박 일구는 사람들  
일본서 자투리땅 임대 사업이 뜨는 이유



값 3,500원



9 771228 44006 30  
ISSN 1228-4440

한국경제신문



인도네시아 경제개발

# 무한 잠재력... SOC 확충과 부정부패 척결이 관건

한승혁 법무법인 지평지성 호주변호사

**얼**마 전 인도네시아 중부에 있는 로콘 화산의 재폭발은 인도네시아가 400개 이상의 화산 지대와 1만 37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국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. 그러나 화산 폭발은 2억400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. 화산은 인도네시아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자원이다. 지열의 시추와 추출에 관심이 많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또 다른 국가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 쉘브론(Chevron), 제너럴일렉트릭(GE) 등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내 지열 프로젝트와 관련된 투자금은 현재 300억 달러에 달한다.

## 글로벌 기업, 지열 프로젝트에만 300억 달러 투자

최근 인도네시아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. 인도네시아 통화 관리 그룹(Currency Management Group)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 경제는 6% 성장했으며 2012년에는 약 7%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이러한 성장 추세 덕분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(FDI)는 2006~2008년에 150% 증가했고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.

이는 외국 자본의 꾸준한 유입을 장려해 온 현 정부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.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는 인도네시아를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부패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유도요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뒤인 2007년 179개국 중 143위였던 부패 지수가 2010년 110위로 순위가 올랐다. 유도요노 대통령은 2011년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부패와 도덕적 해이의 척결을 포함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 천명했다.

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는 2007년 외국인과 내국인의 투자를 이종으로 규제하던 법제를 일원화한 투자법과 유한회사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

한 법적 정비에도 힘쓰고 있다.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순위 6위인 한국 기업은 전력 문제 등 인프라 부족과 복잡한 행정 규제와 처리,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된 부정부패로 현지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.

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연 7% 이상의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 경제구조로 진입한다는 중·장기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. 이에 따르면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를 위해 전국을 6개 경제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 강점에 따라 주요 산업 및 인프라를 구축, 연결해 종합적인 국토 개발을 이룬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.

그러나 아무리 잘 정비된 법제도와 훌륭한 마스터플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 여부는 사람의 몫이다.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분명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뤄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국가다.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잠재력을 믿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인도네시아가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기회를 찾아야 할 때다. □

인도네시아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투자를 이종으로 규제하던 법제를 일원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.

